



2024년 12월 25일(제1226호) 주님 상탄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2024년 상탄메시지

“오늘 다투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11)

사랑하는 군종교구민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온 구세주께서 오늘 기쁜 이 밤, 우리 곁에 탄생하셨습니다.

전후방, 영공과 영해 그리고 해외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성탄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군종교구 가정의 한분 한분에게도 아기 예수님 탄생의 축복이 가득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곁에 태어나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께서 죄와 삶의 고통에 짓눌려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엄숙히 선포됩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신 이 신비를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고 깨달으려 할 때만 가능하며, 주신 선물을 감사로써 받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라고 복음사가 요한은 전합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죄와 죽음,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원의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신비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다.”(필리 2,7) 성자의 탄생은 하느님 자기비하와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죄와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던 인류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들판에 살면서 양 떼를 지키는 순박한 목자들 들레에 빛이 비추어지며, 두려움에 싸인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11-12)

기원후 5세기의 성 레오 교황은 성탄절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구세주께서 탄생하셨으니 기뻐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소멸하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 기쁨을 부여 주시는 생명께서 탄생하신 이날 슬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기쁨의 참여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 없으며 기뻐할 이유는 모두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생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면에 계속>

주님 상탄 대축일 밤 미시

제 1 독 시

이사 9,1-6

회 답 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 2 독 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영 성 제 송

루카 2,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2024년 성탄메시지> (계속)

구세주의 육화로 인한 '기쁨'은 그리스도교 정신의 핵심이며, 궁극 목표입니다.

오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어둠 속을 걸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이사 9,1-2) 신앙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입니다.

“라마에서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예레 31,15)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대략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와 이스라엘의 전쟁 역시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발생시키며 지금껏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분쟁과 테러와 전쟁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시 격동의 정치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교만이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유린한 채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설정한 정의의 잣대로 집단을 이념화시키고, 공동체를 양분합니다. 더 이상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내 주장과 생각만을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라는 말씀이나,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태 7,12)는 말씀은 고리타분한 성경 속의 말씀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를 풀어나가야 할지 답답함을 느낍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정기 회년을 맞아 교황님께서 내려주신 주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1티모 1,1)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희망은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기대와 바람을 저마다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회년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되살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바라라. 네 마음 굳세고 꾀뚫혀져라. 주님께 바라라.”(시편 27,14)

앞이 분간되지 않는 칙흑 같은 어둠 속에 촛불이 밝혀지면 어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광명의 세상이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없애시고 광명과 빛을 선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군중교구민 여러분!

천사들의 환호 속에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의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사회가 혼탁하더라도, 기가 꺾이거나 낙담하지 맙시다. 교황님 말씀대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지나면 광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우리 군인들, 우리 국민들은 이를 잘 헤쳐 나갈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구세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껏 기뻐하며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경축합시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



**2024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진주교 군중교구장 시상범 티토 주교**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제 1 독 시

이사 52,7-10

회 답 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 2 독 시

히브 1,1-6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요한 1,1-18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